

사변과 실험성으로 상상력의 새 지평 여는 번역소설들

철학적 사색과 환상소설 진영으로 양분돼

번역소설의 강세가 여전하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좀더 다양한 나라의 작품이 소개된다는 것. 라틴문학이 예전보다 늘었으며, 티베트 작가의 소설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소설들은 사변적인 성격이 더 강화됐다. 이들 모두 형식면에서 실험성이 강하다. 멀티미디어와 결합한 소설이 있는가 하면, 시와 수필과 소설을 합쳐놓은 듯한 정체불명의 장르도 찾아볼 수 있다.



서점의 소설 코너는 언제나 신간들로 차고 넘친다. 외국소설이라 해서 다를 바 없다. 비교적 해외동향에 밝고 부지런한 독자라도, 몇달만 서점에 발을 끊으면 금방 모르는 책들 천지가 돼버린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어권 문학에서 작가들의 세대교체가 빈번한 듯하다. 중남미 쪽을 보자. 불과 2~3년 전만 해도 마르케스, 보르헤스, 네루다의 삼자구도였지만, 지금은 이들 거장의 뒤를 잇는 신세대 작가들의 특색 튀는 작품들이 대거 상륙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최근 《슬픈 빌라》(신현숙, 책세상)가 출간돼 파트릭 모디아노의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던 하지만 키냐르, 브뤼크네르, 카레르 등 생소한 이름들이 어느새 새로운 작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소설 형식을 뛰어넘는 소설들

그가운데서도 《사랑의 법칙》(라우라 에스키벨, 미겔란소 프라도, 권미선, 민음사)은 아주 상쾌하게 소설장르의 담을 넘고 있는 작품이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프라도가 그린 만화가 등장하고, 만화를 볼 때 들으라고 책 겉표지엔 푸치니의 오페라에서 콜라넨 음악을 실은 CD가 붙어 있다. 작가는 가끔 스토리에서 빠져나와 이 대목에선 무슨무슨 노래를 들으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이런 '소품' 들은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러브스토리를 더욱 애절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주인공 남녀가 그들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멕시코가 스페인에 점령당하던 15세기 유럽부터 무려 8세기 동안 끊임없이 유회한다는 내용이다. 신세대식 마술적 리얼리즘이라 할 만하다.

《사랑의 법칙》이 사뭇한 문체와 대책없는 낙관주의로 독자들을 이끌어간다면, 《은밀한 생》(파스칼 키냐르, 송의경, 문학과학)은 다소 낮설고 묵직하게 소설의 문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책'이다. 정체불명이라 함은 이 책이 시도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에세이나 명상록의 범주에 넣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속성을 흡수한 듯 보인다. 총 53장으로 나뉜 시적인 아포리즘 속에서 작가는 '사랑'의 문제를 탐구한다. 사랑은 사회와 소통할 수 없으며, 연인들 사이에서조차도 보지도, 말하지도 않는 은밀한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작가는 전화도 놓지 않은 채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서 은밀한 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가 사라지는 프랑스 소설들

예전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요즘 프랑스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 보다는

'철학적 사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이다. 키냐르와 함께 이런 경향을 이끌어가는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장편소설 《아름다움을 훔쳐라》(김운비, 문학동네)는 젊은 여자의 아름다움은 범죄라는 냉혹한 명제를 내세우며 경이로운 블랙유머의 세계를 연출한다. 옮긴이는 작가를 "브뤼크네르는 욕망과 지식의 무대를 사랑한다. 무대를 잔혹할 만큼 지적으로 꾸미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런데 자기 소설의 등장인물을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지적인 냉혹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 바로 《콧수염》(전미연, 열린책들)의 지은이 엠마누엘 카레르다. 몽상과 현실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이 소설은 아내를 놀래주기 위해 남편이 자신의 오랜 장식품인 콧수염을 깎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아내는 물론 주위 사람들 모두 입이라도 맞춘 듯 "너는 원래 콧수염이 없었잖아!" 하고 나온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파배기처럼 꼬인다. 지은이는 콧수염 깎는 장난에서 시작된 경쾌한 리듬이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점차 악몽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섬뜩하리만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문학의 환상성을 좇는 독자라면 《추락하는

여인》(팻 머피, 안봉선)과 《높은 성의 사나이》(필립 K. 딕, 오근영, 이상 시공사)가 추천할 만하다. 전자는 과거의 유령을 볼 수 있는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딸이 고대 마야의 어떤 '힘'과 만나는 과정을 온통 마술과 판타지로 화려하게 치장했다. 후자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자로 유명한 작가의 대표작으로, "2차대전에서 연합군이 패했다면?" 하는 가정을 토대로 가상의 1960년대를 음울하게 그려보이고 있는 소설이다.

구동독 출신의 독일 노동자이자 소설가인 볼프강 힐비히의 《나》(김선형, 책세상)는 리얼리즘과 의식의 흐름 기법이 절묘하게 결합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통일 전 동독에서 '작가'이자 '스파이'로 이중생활을 하는 주인공 M.W.의 정신병적인 강박관념과 불안을 통해 동독의 비밀경찰과 정체성 문제를 다뤘다. 독특한 독일어 문체를 구사하고 내면세계를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어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사회 전체의 '심리'를 읽어내고자 한 작가의 의식은 높이 살 만하다.

전통적 글쓰기로 회귀하는 작가들도 눈에 띈다. 칠레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운명의 딸》(권미선, 민음사)은 지은이가 왜 '탁월한 이

야기꾼'으로 전세계의 사랑을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중남미 문학에서 독자를 사로잡는 중요 테마 가운데 하나는 정체성 문제다. 이 작품에서 아옌데가 보여주는 것도 골드러시 붐을 타고 각지에서 몰려든 군중들의 삶을 통해 주인공 엘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낯선 나라 작가들의 방문은 신선하고도 반갑다. 이탈리아 칼비노에 비견되는 터키의 천재 작가 오르한 파묵. 그의 《하얀성》(최종수, 문학동네)은 상상력의 전율스런 극한으로 독자를 끌어올린다. 때는 17세기, 제국 이스탄불로 납치된 이탈리아 학자가 그곳 점성술사와 벌이는 지적 모험이 줄거리다.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독자를 사로잡으며, 책을 덮고도 끝내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여운이 매력이다. 또한 허구와 실제, 자아와 타자, 동서양에 가로놓인 인식의 차이 등을 드러내는 숨씨도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티베트의 고독(전2권)》(알라이 지음, 지쿤 옮김, 아라크네)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티베트 출신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중국 대륙에서 공산혁명이 시작되기 직전 티베트 지배계급이던 '루스'의 마지막 영광과 몰락을 처연하고도 장중하게 담았다. 붉은 티베트의 모랫바람처럼 건조한 문체는 티베트인

의 삶의 정취를 잘 표현하고 있다.

미번역 고전들도 새롭게 소개돼

이미 문호의 반열에 오른 과거 작가들의 미발표작들도 몇편 번역돼 나왔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독자들의 눈을 당기는 이는 바로 스탕달이다. 《파르마의 수도원(전2권)》(원윤수 외, 민음사)은 그가 1839년에 쓴 만년작으로, 행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스탕달식 주인공의 인생사가 펼쳐진다. 프루스트는 이 작품을 "볼테르적인 아이디어와 프랑수아적인 재치가 넘친다"고 평한 바 있는데, 과연 긴박한 줄거리 속에서 인간 욕망의 심층부를 포착하는 대가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코트 피츠제럴드의 국내 미발표작 <컷 그라스 보울> 등 6편의 단편을 모은 《비 오는 날 아침, 빠리에서 죽다》(김소희, 생각하는백성)도 나왔다. 잠시도 한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 '현대적'인 문체와 상상력의 강도는 오늘날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외 《갈릴레이의 생애》(베르톨트 브레히트 외, 차경아, 두레), 《영국고전회곡선(전2권)》 등의 고전번역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강성민 기자

미국의 가벼움과 프랑스의 무거움 사이에서

《사랑의 법칙》《운명의 딸》번역한 권미선씨

권미선씨(36)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에서 <황금세기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페인문학 전공자다. 권씨는 지난 1996년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배달부>(사람과책)를 시작으로 마르케스의 <납치일기(전2권)>(민음사), 레네 아빌레스 파빌라의 <그녀를 위한 추억>《외로운 독재자》(이상 아침나라),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즈의 <산타 에비타(전2권)>(자작나무) 등 총 13권의 중남미 소설을 번역하며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권씨에게 오늘날의 중남미 소설에 대해 물어봤다.

중남미문학의 최근 경향은 어떤가?

"이른바 중남미 문학권이라 할 수 있는 칠레와 멕시코 등지에서는 '포스트붐' 세대의 등장에 따라 가볍고 읽기 쉬우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소설들이 강세다. 보르헤스나 마르케스로 중남미 문학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겐 낯설게 다가올 것이다."

중남미문학이 국내에서 잘 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칠레나 멕시코의 사회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파빌라의 <외로운 독재자>에 묘사된 68 학생학살 사건 같은 경우, 광주민주화운동과 닮은꼴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른바 '마술적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소설의 분위기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다시 살아나길 기다려 유령과 대화하는 장면은 우리의 무속신앙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좀더 중요한 것은 중남미 소설들이 미국식의 가벼움에 질리거나 프랑스나 독일의 사변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에 질린 독자들에게 일종의 타협점을 제공하지 않은가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쉽게 읽을 수 있고 주제의식도 선명한 작품을 독자들이 선호한다는 말이다."

중남미에서 뛰어난 작가들이 계속 나오는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남미가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 해서, 문화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국민들 개개인의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독서량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일반 단행본의 경우 최소 20만부는 팔려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수 있다.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